

민주 11일 전대 '과반참여' 전전공공

정족수 미달엔 대회 무산 초유의 사태 올 수도 통합 로드맵 싸고 대의원들 반발 '보이콧' 우려

민주당이 오는 11일 통합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들이 참석할 것인지 걱정하는 태산이다.

과반 이하가 참석하는데 그럴 경우, 임시 전당대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당대회에서의 통합 의결에 대한 절차도 골치거리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갈등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5일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 회의를 개최, 11일 열리는 임시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참석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현재, 대의원은 1만2196명.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61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참여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의결하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통합의 대의가 있지만 흥행적 측면에서 대의원의 참여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통합의 방법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통합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통합 지도부 경선 룰, 수입기구 역할)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에 반발하는 대의원들의 임시 전당대회 '보이콧'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정족수 미달로 전당대회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임시 전당대회가 무산된다면 민주당은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정당의 해산과 합당 등은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당대회 무산에 따른 책임론 등이 부상하면서 통합의 감동은 반감할 가능성이 높다.

당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진 지난 10·3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1만160명(78%)으로 집계됐다. 각 후보 진영에서 대의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1만명을 겨우 넘긴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 전당대회를 대비해 각 지역별로 대의원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의원들을 대거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도권 대의원들만 적극 참여한다면 전당대회 개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민주당 아권통합협상위원장이 정세균 전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협상 위원회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각 지역별로 대의원들의 참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시 전당대회에서의 통합을 의결하기 위한 표결 여부도 골치거리다. 표결시 통합 의결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통합의 동력을 모아야 할 전당대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석현 민주당 전 당대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전대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완만히 치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결 없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권통합 당명 민주·혁통 고민

아권 통합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아권이 당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측은 '민주'라는 당명을 고수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협상 파트너인 혁신과 통합 등 다른 진영은 그 부분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또 당명을 개정할 경우 유권자들의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2008년 7월 현재의 이름으로 당명을 정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계'를 아우르는 정당의 당명 변경 전사를 살펴보면 새정치국민회의(1999년), 새천년민주당(2000년), 열린우리당(2003년), 중도개혁통합신당(2007년), 중도통합민주당(2007년)에 이어 통합민주당(2008년) 등 여러 이름을 거쳤다.

반면에 현존 정당 중 가장 많은 변경을 보인 한나라당은 14년 동안 한 이름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jgalee@

시민통합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최민회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 재개에 대비했다.

양측은 이날 중순까지 당대당 신설 협상을 공식 결의할 계획이지만 경선 룰 협상 등 예민한 논란거리가 남아 있어 통합 작업이 순항할 수 있지는 미지수다.

통합정당의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 룰 협상은 최대 난제다.

민주당은 당원칙과 대의원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의 경선 룰을 선호하지만 시민통합당은 조직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국민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野統협상 재개 순항할까

협상단, 통합위 첫 회의... 통합방식·경선 룰 등 논란 여전

민주당이 4일 '혁신과통합' 등 아권 통합 대상들과 통합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염동연·윤호중 전 의원과 김현태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꾸려 이날 중 외부 통합세력과 상견례를 가졌다.

정세균 통합협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민주당 임시전대 일정이 잡히고 외부세력들도 의사결정을 위한 일정을 잡았으니 그 일정에 맞춰 통합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은 '덧셈통합'을 넘어 통합의 시너지가 극대화하는 '곱셈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통합협상위는 당헌당규분과와 강령정책분과로 구성됐으며 당헌당규분과에 우윤근 위원장과 전정배·강창일·문학진·염동연·박양수·백원우·윤호중·이강철·유승희·김동철 등 위원 10명이 배정됐다. 또 강령정책분과에는 정범구 위원장과 박순성·이상호·전해숙·조정식·신진규·손한민·전병현·유종일·김용익·허대만 등 위원 10명이 각각 확정됐다. 이 외에 당연직 통합협상위원으로 당 전략정보본부장인 박선숙 의원과 김현태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됐다. 박 의원은 통합협상위 대변인을 맡았다.

이 같은 민주당의 상황과 발을 맞춰 혁신과통합 등 외부 통합세력이 꾸린

합한 시민당원제 도입, 정당 지도부나 각급 공직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시민 참여 경선의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몇 차례 가진 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선출방안 등에 대해 대의원 20%, 국민 80%(인터넷·모바일·현장투표 포함)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통합협상위원장을 바꾸는 등 내부 논란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협상위원장이 바뀌었다더라도 이를 승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권통합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우선 일단 통합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명령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평가 라운지

장병완, 효행상 수상자 선정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사)한국효도회가 수여하는 효행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효도회는 장 의원을 기획예산처 근무 시절에 청렴과 성실성으로 공직사회의 귀감이 됐고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 등을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의원은 모친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노인복지 향상에 각별한 신경을 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9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 '베세토 갤러리'에서 효 문화 전시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임내현, 출판기념회 성료



광주고검장 출신인 임내현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저서 '내가 만난 세상 내가 배운 민심'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과 박주선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손학규 대표와 박지연 전 원내대표 등이 영상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임 변호사는 저서에 자신이 어린 시절 키워왔던 신념과 공직생활, 조직혁신 운동, 사회운동 등에 대한 삶의 기록과 특히 올해 여름 '걸어서 북구 한바퀴'를 돌면서 만난 서민들의 애환을 담았다.

김영진, 내일 출판기념회 개최



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서구 을)이 6일 오후 3시 광주 서구 치평동 감대중간편선센터에서 저서 '역경 속에 핀 꿈'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장삼 전 국무총리,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임동진 텔런트 등이 참석하여 축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 책에 시골우체국 사원에서 농림부장관과 5년의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유년기와 역경으로 가득했던 청년기, 20여 년의 정치역정 등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았다.

김경진, 최효종과 출판기념회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동강대학교 대강당에서 저서 '문명'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강홍석 의원에 게 고소를 당해 논란이 된 개그맨 최효종씨가 사회자로 참석, 김 변호사와 20명의 시민패널이 펼쳐진 100분 토론 형식의 '희망토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미래사회에 펼쳐질 문명의 혜택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전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문성근 "민주당은 통합 더 지체해선 안돼"

"지도부 경선 출마 고민중... 시민참여 대폭 확대해야"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혁신과통합 상임대표)는 4일 아권 통합과 관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나꼼수' 광주 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문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일정이 촉박한데 민주당 내부 논란이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시민경선 확대 등을 놓고 일부에서는 전당대회를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데 이는 승계물이 아니라 경선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통합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혁신과 통합은 야당 통합사에서 처음으로 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정당의 혁신, 즉 혁신만 받아들이면 된다"며 "혁신의 내용은 온·오프라인이 결

합한 시민당원제 도입, 정당 지도부나 각급 공직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시민 참여 경선의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몇 차례 가진 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에서 지도부 선출방안 등에 대해 대의원 20%, 국민 80%(인터넷·모바일·현장투표 포함)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통합협상위원장을 바꾸는 등 내부 논란으로 지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협상위원장이 바뀌었다더라도 이를 승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권통합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출마와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라며 "우선 일단 통합이 성사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 명령 회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가 4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묘역을 방문, 참배·헌화한 뒤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원명원
금남로2가 구동구청1층
중화요리전문.광주에서 처음 출시한 요리
대표 왕정웅
☎(062)232-1422

술발명가
동구 광산동 79번지
전주장국, 우거지사골탕, 추어탕
☎(062)225-1978

KCC라이프앤진(광주지사)
금남로3가 동양저축은행 옆
KT&G 건강브랜드 영업시원모집
☎(070)7533-1007

골드리치
학동 삼익세라믹@후문앞
금거래소
대표 신환이
☎(062)228-8285

만나왕족발
왕림동 휴먼시아2단지입구 맞은편
왕족발제조전문업체, 주문즉시배달전문
세트메뉴 24,000/20,000/29,000/25,000
☎(062)671-0994

오리명가
문흥동 949-9번지
오리요리전문
대표 최귀연
☎(062)261-3838

호수통신
두암동 미라보@사거리에서 아파트방면 50M
SK, KT, LG스마트 공짜폰 많음
대표 정수지
☎(062)269-9971

개성자원
우산동 시영1차@사거리 SK대성주유소 옆
고철, 비철, 중고자재, 철거
세인제강 납품업체 전문
대표 신창호
☎(062)941-9416~7

매산건축철거전문
신안동 크리문제과 옆
상가, 건물, 집수리, 폐기물처리, 진토, 모래, 자갈
25톤덤펀트 방수, 주택철거전문
☎(062)528-7008

폴스타인글리쉬북광주어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역교 옆 현대빌딩4층
국가영어능력평가(HNEAT)
전문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목회고사 학습시스템전문학원
초, 중, 고, 생수시모집
☎(062)525-1235~6

신맛꾸꾸미
계림동 E마트 건너편
신맛꾸꾸미에 모든 것! 꾸꾸미철판볶음
순꾸꾸미볶음, 꾸꾸미삼겹살볶음 단체예약순남형
☎(062)523-1116

화풍
동구 운림동 운림중학교 앞
정통 중화요리
☎(062)223-5540

말바우한의원
두암동 841-5 말바우소방소 앞
요통, 어깨통증, 슬통증 각종 통증치료전문
원장 이웅식
☎(062)262-5275

?!
임동 삼일의원원골목
각종선물세트, 행사용품, 덩레폼
대표 나경원
☎(062)470-5559

Aigle광주점
용봉동 북개도로 현대자동차건너
159년 전통 아우터
대표 김창규
☎(070)7722-2114

정원일식
금동 구시청사거리에서 병무청쪽 100m
일식전문, 초밥전문, 일식도시락
단체손님예약
대표 노동천
☎(062)366-8000

정일식당
동구 금동 15-2번지
갈치조림, 이구찜, 생선구이, 돼지갈비찜
대표 노수연
☎(062)233-7979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예술의 거리
기념품전문 판매점
대표 서대석
☎(062)222-1936

무진보
동구 금남로2가 7-3 카톨릭센터 맞은편
오리요리명가 단체손님예약형
대표 이명옥
☎(062)523-5292

커피홀릭
동구 총정로3가 11(이포우정문 건너편 2층)
직접볶아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굴마을
서석동 동구청 남문
세계적 굴요리전문점
대표 임영희
☎(062)266-9119

한일이삿집센터
두암동 란악곡골목 에덴마트 앞
포장이사, 일반이사, 고층사다리차
피아노각종자재, 농수산물 운반
☎(062)269-8524

자동펌프전기A/S점
두암동 란악곡골목 사거리 에덴마트 앞
한일자동펌프 판매 및 시공, 지하수개발
설비공사, 출장A/S전문
☎(011)603-5120

목화웨딩
동구 불로동 169-1 히딩크호텔입구
웨딩미디어, 스마트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내고항바자락칼국수
서구 쌍암동 CGV사거리
보리밥+칼국수=5,000원
팔죽5,000원, 왕만두5,000원
☎(062)972-1315

메기대마왕
서구 쌍암동 CGV건너편
민물요리 전문점
대표 손주식
☎(062)971-8287

월산근로자대기소
월산2동 MBC방송국입구 맞은편
철거전문업체, 건축인력공급, 모든건축공사, 개축설비
인테리어 리모델링전문, 기능인력주, 야간/일당명일지급
☎(062)351-1311

황태사랑
동구 금남로2가 4-1 구 동구청후문
황태탕, 황태떡, 생선구이, 돌솥밥
대표 김진숙
☎(062)224-1541